

토론대회 참가자의 경험을 통해 본 토론의 교육적 효과* - 부산대학교 독서토론대회를 중심으로 -

차 윤 정**

1. 서론
2. 연구 대상과 방법
3. 연구 결과 및 논의
 - 1) 토론 능력
 - 2) 독서 능력
 - 3) 사고력
 - 4) 협동학습
 - 5) 학문적 역량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독서토론대회 참가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토론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의 경험을 교육적 효과에 따라 분류하면 토론 능력, 독서 능력, 사고력, 협동학습, 학문적 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토론 능력에서는 논리성에 기반한 논증 능력의 향상과 말하기, 듣기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나타났다. 독서 능력에서는 장르 편향적 독서 태도의 변화와 비판적 독서 경험이 나타났고, 관점의 다양화와 사고력의 확장이 나타났다. 팀원 간의 피드백을 통한 문제점 개선이나 팀원 간의 신뢰가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기부여를 하는 협동학습의 장점도 나타났다. 토론대회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학습 방법이 학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greencha@pusan.ac.kr)

끼치는 학문적 역량 강화도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 학생들이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한 특정 능력의 향상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 능력 향상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다. 둘째, 그동안 토론의 교육적 효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자기주도적학습 역량 같은 학문적 역량 강화가 나타난 점이다. 이는 앞으로 토론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주요어: 토론, 교육적 효과, 토론 능력, 협동학습, 학문적 역량

1. 서론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과 함께 구성원들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강조되면서 토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에서도 토론을 단순히 수업 방식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토론에 대한 지식과 방법 같은 토론 자체를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교육적 상황에 따라 토론 교육과 관련한 연구성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중·고등학교에서의 토론 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학 교육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학에서의 토론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토론 교육내용 연구¹⁾와 수업모형 연구²⁾, 수업 방안 연구³⁾ 등이 주된 연구 경향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1) 조민하, 「대학생 토론의 청중 평가 분석을 통한 교육 내용 모색에 대한 연구」, 『화법연구』 22권, 한국화법학회, 2013.

2) 강수진, 「논증적 글쓰기와 교육 토론의 통합 수업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7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3) 고혜원, 「교양교육으로서 독서 및 토론 수업 방안-중앙대학교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28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6; 이미정, 「의사소통 심화 과정으로서의 토론 수업 방안 연구-전문대학 교양국어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장영희, 「대학생 토론 교육의 실재와 개선 방안 연구-남서울대 토론 지도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18집, 화법연구회, 2011; 정현숙, 「교양기초교육으로서의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제언-성균관대학교의 스피치와 토론 과목 사례」, 『교양교육연구』 6권 1호,

연구들은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긍정적 기능을 전제 한 상태에서 교육내용이나 교수모형, 수업 방안, 수업 사례, 타 기능과 연계 한 토론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며, 토론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구체적 으로 고찰한 연구는 드물다.⁴⁾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그 러하다. 드물게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교수자가 설계한 설문문항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을 분석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⁵⁾, 실제적으로 학생 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설문문항 이외에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 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토론을 통해 실제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경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토론대회 참가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토론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산대학교의 독서 토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독서토론대회 참가 경험 양상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독서토론대회가 토론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토론 교육 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토론대회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토론대회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 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토론 교육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독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토론대회라는 점⁶⁾에서 독서와 관련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4)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나 효능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학생과 고등학 생이라는 연구 대상의 차이는 연구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이선영, 「토론대회 경험과 토론 효능감에 대한 연구-고등학교 토론대회 소 감문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9권, 국어교육학회, 2010.

5) 황순희, 「공학인 대상 <아카데미 토론> 강의내용 개발과 교육적 효과 분석」, 『수사학』 16권, 한국수사학회, 2012; 정현숙, 정순현, 「아카데미식 토론수업의 교육적 효과-성균관대학교 토론수업사례」, 『철학·윤리 교육 연구』 21권 35호, 한국철학교육학회, 2005.

6) 부산대학교 독서토론대회는 선정 도서를 기반으로 토론을 한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독서 경험은 토론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부산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고전 읽기와 토론〉과 연계한 독서토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부산대학교의 독서토론대회는 교양필수 과목 〈고전 읽기와 토론〉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교과목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교과와 비교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는 의도이다. 특히 독서토론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폭넓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을 통해 건강한 의견 조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그리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독서토론대회의 토론 방식은 부산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칼포퍼식 토론 방식을 수정한 것이다. 진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논제를 중심으로 찬성팀과 반대팀이 각각 입론과 심문을 진행한 후 숙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각 팀별로 반론을 한 후 심문이 진행되고 두 번째 숙의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반대팀과 찬성팀이 각각 최종발언으로 함으로써 토론이 마무리된다.

독서토론대회는 〈고전 읽기와 토론〉 과목 수강자 전체를 대상으로 고전이나 명저, 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의 거리를 담고 있는 도서를 기반으로, 논제를 선정하여 독서와 토론 활동을 진행한다. 독서토론대회의 진행 과정은 일차적으로 〈고전 읽기와 토론〉 수업 각 분반에서 2팀을 내부 선정하여 분반 대표 1팀을 선발, 예선과 본선을 치르게 된다. 〈고전 읽기와 토론〉 과목 분반 당 수강생은 30여 명으로, 정규 수업에서는 학생 당 토론의 기회가 1회 정도 주어진다. 그런데 1회의 토론만으로는 토론의 교육적 효과를 고찰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비교과인 독서토론대회에 참가하여, 최소 5회 이상 토론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10명이다. 토론대회 참가자의 토론 횟수는 6회가 가장 많고 다음이 5회이다. 최초 연구설계에서는 5,6회 토론에 참가한 학

생 모두가 대상이었으나, 5회 참가자 중 4명이 인터뷰를 거절하여 10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생들 모두 인터뷰 내용을 실명 공개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성명의 일부를 가리고 제시한다.

〈연구 참가자〉

순번	성명	소속학과	토론 횟수	면담일 및 시간
참가자1	장*원	정치외교학과	6회	2023.09.07. 16:30~18:50
참가자2	김*윤	불어불문학과	6회	
참가자3	양*린	불어불문학과	6회	
참가자4	김*민	사학과	5회	2023.09.08. 13:00~16:00
참가자5	김*민	관광컨벤션학과	5회	
참가자6	김*	경영학과	5회	
참가자7	조*현	공공정책학부	6회	2023.09.16. 13:00~16:00
참가자8	박*준	영어영문학과	6회	
참가자9	박*환	철학과	6회	
참가자10	유*현	심리학과	6회	

인터뷰에서는 팀별(3~4명)로 학생들이 독서토론대회 과정에서 ‘독서’와 ‘토론’, 기타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구술하게 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은 보충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교수자가 설문항목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경험 내용의 폭을 좁히는 것을 피하고, 좀더 실제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 가운데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범주화하여 학생들의 경험 분석을 시도한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인터뷰 결과 독서토론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교육적 효

과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1) 토론 능력 2) 독서 능력 3) 사고력 4) 협동학습 5) 학문적 역량과 관련된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

1) 토론 능력

일반적으로 토론 능력은 논증 능력, 의사소통 능력, 토론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된다. 논증 능력이란 토론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상대방 논리의 오류와 허점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논증 능력은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역동적인 토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한다. 토론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열린 자세, 토론의 형식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

(1) 논증 능력

논증 능력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나 허점을 찾아 비판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논리성⁷⁾의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독서토론대회 이전과 토론 과정에서의 경험, 논리적 사고의 향상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 1) ㄱ. 이전에는 상대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중략> 그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솔직히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토론대회 하면서 사실 토론대회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입장이 어떻게 잘못됐고 그 방향이 사실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을 자꾸 하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니까 토론대회를 하면서 그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는 것 같아요. (참가자2)

7) 논리적 사고는 사고력의 향상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토론 능력의 중요한 부분인 논증 능력이 논리적 사고의 향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증 능력에서 다루기로 한다.

- ㄱ'. 전에는 별로 말하는데 논리가 부족하다 막 그런 생각을 딱히 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근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막 생각되더라고요. (참가자2)
- 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친구들이랑은 약간 격식 같은 것도 없이 이 논리적인 구조 같은 게 갖춰지지 않은 발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토론의 경우에는 논리적인 구조를 딱딱 갖춰서 발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중략>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좀 말이 되게 장황해지고 핵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대회를 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아직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더 발전시킬 필요성도 느낀 것 같습니다. (참가자6)

1ㄱ, ㄴ)의 상대방의 잘못된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논리적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발화를 하거나처럼, 학생들은 토론대회 이전에는 상대방 견해의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논리적으로 비판하거나 논리성을 갖춰 말하는 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ㄱ)에서 보듯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토론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니까”, “토론의 경우에는 논리적인 구조를 딱딱 갖춰서 발언을 하는”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토론 과정에서 ‘논리성을 갖춘’ 말하기 연습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1ㄱ, ㄴ)의 밑줄 친 부분처럼, 학생들은 토론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거나 적어도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들은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성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이를 수정하며 결과적으로 논리성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토론 과정에서 발언하거나 발언을 들으면서 발언의 논리성 문제와 그 기저의 논리적 사고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토론 교육에서는 토론을 통해 논리적 사고가 신장된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어떤 활동과 관련되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위의 예에서처럼 토론 활동 참가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위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토론 활동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의 신장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 능력이라는 추상적 능력의 향상에 대한 판단을, 발언의 논리성을 척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발언에서 허점을 찾고 그것을 비판하는 능력이나 자신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논리적 사고력도 향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토론의 중요한 부분을 논리적인 말하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 능력 향상의 매개가 말하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들은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거나 나의 발언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반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토론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되었으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2)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주로 말하기, 듣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역동적인 토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한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경험은 토론대회 이전, 토론대회 과정, 토론대회 종료 후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토론대회 이전

토론대회 이전의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 학생들은 주로 말하기, 듣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ㄱ. 긴장하면 말이 되게 커지거든요. 목소리가 오히려.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서 개미 목소리로 내는 것보다는 내가 틀렸더라도 하더라도 <중략> 일부러 그냥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것도 있고 말도 약간 빨라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참가자1)
- ㄴ.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긴장이 되면

말을 조금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단점으로 여겨졌어요. <증략>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게 제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느껴진 적이 많았어요. (참가자3)

- 3) ㄱ. 저는 듣고 싶은 것만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얘기할 때 약간 그 친구 입장에서는 a이기도 한데 사실 내 입장은 b야를 얘기한다면, 나는 오케이 그럼 넌 a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거네. 이렇게 약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b라는 거는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1)
- ㄴ. 저도 약간 듣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제 확증 편향처럼 듣고 싶은 걸 듣고 맞아 했던 거 같아요. (참가자3)
- ㄷ. 이제 수업을 듣다가 약간 의식이나 그런 게 좀 다른 데로 쏠리는 게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서 그때 좀 교수님 말이나 그런 걸 놓칠 때가 되게 많아서 탄 데 정신이 팔리면 또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가자6)
- ㄹ. 저는 일상 대화에서는 귀가 약간 닫혀 있다고들 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다시 한 번 말해 줄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꽤 잦았고 (참가자5)

2ㄱ, ㄴ)에서는 ‘긴장’과 ‘목소리 크기’, ‘떨림’, ‘말의 속도’ 같은 말하기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으며, 3ㄱ~ㄹ)에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집중하지 못함’, ‘즉각적인 이해의 어려움’ 같은 듣기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말하기, 듣기에 있어 자신이 가진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토론대회 이전에는 자신의 말하기, 듣기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었다는 인터뷰도 있었다.

- 4) ㄱ. 사실은 이 토론대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제 말하는 영역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어떤 게 강점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토론대회에 임했었는데 (참가자2)

4ㄱ)에서는 토론대회 이전에는, 자신이 말하기에 있어 어떤 단점과 장점을

가졌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토론대회가 자신의 말하기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토론대회 과정

토론대회 과정에서 반복되는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ㄱ. <중략> 아무래도 토론대회 과정에서 말이라는 게 중심이 되니까 피드백이 오면서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돌려봐야겠다 해서 팀원들과 함께 이것을 서로가 서로를 피드백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약간 뭔가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그렇고 말하기 영역에서 특히 조금 약간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가자2)
- 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내뱉는 거다 보니까 나가고 나면 사실은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는 평소 없었던 것 같아요. <중략> 아무래도 토론대회다 보니까 매 순간 제가 입론을 하고 나면 내가 입론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놓쳐 이 부분에 부족했구나.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추가해서 말을 했으면 좋았겠다. 저희 팀원이 또 말을 하면 이 부분 빼먹었네. 그럼 이 부분을 내가 다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을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좀 협동도 하지만 저 개인의 말을 끊임없이 내가 방금 어떻게 말을 했었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참가자3)
- 6) ㄱ. <중략> 청중의 입장에서 딱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쉬운 질문 또 내가 뭐라고 말을 정리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논리에 맞는 말을 문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되게 생각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참가자3)

5ㄱ, ㄴ)에서 보면 학생들은 토론 과정에서 특히 말하기에 대해, 스스로 그리고 팀원들 간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성찰하는 경험을 한다.

피드백 내용은 주로 발언의 내용, 누락된 부분, 집중할 부분, 말할 때 주의할 점 등이며, 이러한 피드백은 말하기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토론 과정에서 듣기와 관련한 성찰이나 피드백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만 6ㄱ)에서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속도가 떨어졌다는 경험을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생은 토론과정에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ㄱ)의 ‘토론대회 과정에서 말이라는 게 중심이 되니까’ 역시, 학생들이 토론을 말하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대회 종료 후

토론대회를 마친 시점에서 학생들은 말하기, 듣기 부분에서 자신의 변화와 바람직한 말하기, 듣기 태도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7) ㄱ. <중략> 제가 토론회를 통해서 얻은 건 제 목소리 톤을 찾았다는 건데 좀 알맞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발성을 갖게 된 것 같긴 해요. (참가자2)
- ㄴ. 발표할 때 긴장도 엄청 심한 편이었었는데 약간 괜찮아진 것 같고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중략> 또 평소에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말할 때 앞에 두서 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거나 서론이 길다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아서 <중략> 이제 조금 요약해서 말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참가자5)
- ㄷ. 말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게 떠오르면 그걸 또 덧붙이고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대회를 몇 번 거치고 나서는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 부분에 얘기를 하고 저거는 저 부분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구조를 짜고 말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가자4)
- ㄹ. 마지막 결승까지 해서 오히려 조곤조곤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말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섭고 사실 토론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지 오히려 뭔가 자신의 말을 지금 좀 세게 한다 또는 좀 강하게 뭔가 치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느꼈어요. 태도에 있어서도 내가 내 의견을 좀 더 차분하고 또 좀 잘 정제된 채로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새삼 또 느끼게 됐습니다. (참가자3)

예들에서는 말의 속도, 두서없이 말하기, 시간 못 맞추기 같은 평소 말하기의 단점이 토론 과정을 통해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할 때 안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성을 찾았다거나,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거나, 토론을 통해 떠오르는 대로 말하던 데에서 벗어나 내용을 정리, 구조를 짜서 말하게 되었다거나 같은 본인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말할 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을 차분하고 정제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도 밝히고 있다.

말하기와 관련된 변화는 토론 과정에서 스스로 또는 동료 활동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혼자 또는 팀원의 협동을 통하여 말하기의 문제점을 깨닫고 반복되는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교정하고, 그 변화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자로서 역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나아가 관찰을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말하기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 경험을 말하는 부분은, 좋은 말하기 태도에 대한 일반화를 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가자들 가운데는 듣기의 변화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 8) 저희가 상대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 주장이 얼마나 많이 변모가 되는지를 저희끼리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이 저희가 어떤 주장이 들어올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a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건 a가 아니라 a'일 텐데 a'가 아니라 b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되게 넓게 생각하고 그 정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기르게 된 거 같습니다. (참가자2)

8)은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듣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듣기가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그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관계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변화를 깨닫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는 토론 중에 집중해서 듣기를 함으로써 상대 주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전체 속에서 말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토론대회를 마치고 학생들은 자신의 말하기와 듣기 능력의 신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토론대회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 또한 신장시켰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학생들의 주체적 학습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3) 토론 태도

토론 태도와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다.

9) 일단 상대 말을 들은 부분을 리액션을 해주는 것 또한 네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토론에서는 네 잘 들었습니다라든가 이게 되게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중략>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서로가 감정은 상하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는 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평소에 말을 할 때도 내가 좀 안 맞는 의견을 말하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지만 이런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라든가 좀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제안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가자3)

9)에서는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일상의 말하기에도 적용하도록 연습해야겠다고 밝히고 있다. 토론을 통해 토론에서의 예절을 알고, 이를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예절로까지 확장시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토론의 교육적 효과가 토론 영역을 넘어 다른 의사소통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독서 능력

독서 능력과 관련한 경험으로는 주로 독서 태도의 변화와 독서 방식, 필요한 책을 찾는 방법 등이 나타났다. 독서 태도는 좋아하는 장르의 책들만 읽는 장르 편향적인 독서에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독서 방식에서는 질문하며 읽거나 비판적 읽기 같은 경험이 나타났다. 먼저 장르 편향적인 독서 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 10) ㄱ. 저는 책을 좋아하긴 했는데 특정 분야 편식해서 장르 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변화되었다고나 할까 (참가자1)
- ㄴ. 저도, 장르 편식이 정말 과학 이런 거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이지? 읽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읽기 싫은 느낌 뭐 이런 거. 근데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하게 읽다보니 그런 게 좀 없어진 거 같습니다. (참가자3)
- ㄷ. 저는 약간 부류를 가려서 읽는 편이라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고 문학만 골라서 읽는 경향이 조금 켜졌습니다. <중략> 저는 일단 제가 읽고 싶은 분야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분야의 책을 읽을 거 같아요. (참가자5)

학생들은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좋아하던 장르의 책만이 아니라 이전에 잘 읽지 않았던 장르의 책들을 읽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한다. 이는 10ㄴ)에서 보듯이 토론대회 과정에서 다양한 장르의 자료들을 찾아 읽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론에서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비문학적 자료들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료들을 읽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 변화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 중에는 다양한 장르의 독서를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개인, 개인과 사회, 학문 분야 간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 ㄱ. 사실 저는 과학기술 영역에 있어서 사실 흥미를 잘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관련 영역의 책을 좀 읽어볼까 해가지고 몇 권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중략> 근데 그렇게 하면서 책을 조금 읽고 하니까 어찌면은 개인, 개인과 사회는 다 연결이 돼 있고 사회가 개인을 만들고 개인이 사회를 만들고 그냥 이렇게 약간 연결돼 있는 존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략>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다 연결돼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못 느꼈었는데 <중략> 그때 경험 덕분에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참가자2)
- ㄴ. 저도 진짜 이렇게 관심이 아예 없던 분야였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당장 우선순위로 올라오지 않는 분야였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과학 분야로 치우친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인문학 사회 철학 이런 것과 사실은 다 관련이 있는 거였는데, 내가 단순히 그것을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거였구나. (참가자3)

11ㄱ)에서는 토론대회 이후에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읽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 개인과 사회,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얹혀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고, 11ㄴ)에서는 토론대회를 통해 특정 학문 분야가 다른 학문 분야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대상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던 것에서 관계망 속에서 이해하는 시각을 갖게 된 것을 보여준다. 토론 과정에서 논제를 해석하고 주장의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자연 과학의 어느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읽고 이것으로부터 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개별적으로 보이던 개체나 학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가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와 관련한 또 다른 경험으로는 필요한 책을 찾는 방법과 질문하며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 같은 독서 방식에 대한 것이 나타났다.

- 12) ㄱ. 읽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관련된 책을 찾는 방법, 아니면 책을 읽는 방식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또 정보를 확실하게 찾기 위해 질문 리스트 같은 걸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좀 여러모로 배운 거 같습니다. 아무튼 책을 읽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참가자4)
- ㄴ. 제가 배운 게 독서를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고 말은 사실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사실 막상 딱 책을 읽기 시작하면 반박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작가는 나보다 좀 많이 배웠을 것 같고 또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내가 거기서 내가 뭘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챗GPT를 읽으면서 저희끼리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좀 과한 해석 아니야? 아니면 근데 나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저희끼리 계속, 근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도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 하나를. <중략>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비판적으로 하는 거 구나를 실제로 경험해봤고, 진짜 깊은 독서를 비판적 독서를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참가자3)

12ㄱ)에서는 독서토론대회가 독서에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주제 관련 도서 찾기 방법과 질문 리스트를 만들면서 책을 읽는 방식 같은 독서 방식을 알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독서토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제 관련 자료를 찾고 논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해석하며 독서했던 방식이, 이후의 독서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독서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12ㄴ)에서는 비판적 독서에 대해 배웠지만 이전에는 전문가인 작가에 기대어 책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독서를 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토론대회 과정에서 팀원들과 책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비판적 독서,

깊은 독서를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토론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팀원들과 함께한 독서와 비판적 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비판적 독서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비판적 독서 능력의 습득이란 이론적 앎만이 아닌 실제적인 수행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자가 학생들의 비판적 독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함께 독서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독서토론대회는 학생들의 비판적 독서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판적 독서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사고력

사고력과 관련된 것으로는 관점의 다양화를 통한 사고의 확장에 대한 경험이 많이 나타났다.

- 13) ㄱ. 저희가 상대의 주장을 들으면서 <중략> 상대가 a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건 a가 아니라 a'일 텐데 a'가 아니라 b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되게 넓게 생각하고 그 정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기르게 된 거 같습니다. (참가자2)
- ㄴ. 저희가 서로 다 교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그 대회를 통해 대회 과정에서 들리는 의견이나 문장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는 시간 진짜 정말 이거는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참가자1)
- ㄷ. 되게 특이했던 경험이 똑같은 근거인데도 찬성에서도 쓸 수 있고 반대에서도 말만 약간 다르게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근거가 완전히 다른 논리에 쓰이는 걸 보고 내가 어찌면 평소에 말을 할 때도 내가 내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걸 딱 경험하면서 순간 딱 들더라고요. (참가자3)

- ㄹ. 찬성 반대 양측을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문제인데 솔직히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희가 되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논제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고 해서 사고가 점점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참가자10)
- ㅁ. 주제가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그 시간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논거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 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참가자4)

13ㄱ~ㄴ)을 보면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대상에 대해 깊고 넓게 생각하게 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ㄱ,ㄴ)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들리는 의견이나 문장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는”, 13ㄷ)의 “똑같은 근거가 완전히 다른 논리에 쓰이는”에서는, 토론을 통해 동일한 사안이 찬성과 반대측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3ㄷ)의 “내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생각이 그걸 딱 경험하면서 순간 딱 들더라고요”에서는 이러한 앎이 일상의 의사소통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3ㄹ)에서는 토론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졌으며 13ㅁ)에서는 새로운 논제를 만날 때마다 짧은 시간에 논제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함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은 독서토론대회를 통해 사고의 폭이 넓어졌으며, 대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하는 근거나 능력이 신장된 이유를 구체적 경험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즉 상대방의 주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된 능력의 향상을 통해 사고가 깊어지고 넓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또 사고의 다양성이나 사고의 확장이 일어난 이유를 팀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 토론대회 규칙이 찬성과 반대를 모두 준비하도록 한 것, 팀 내에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준비한 것, 계속적으로 바뀌는 주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뷰는 토론이 사고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사고력의 깊이를 더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의 탐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협동학습

독서토론대회는 한 팀이 3~5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팀원들과의 협동을 통해 토론을 준비하며, 그 과정에서 협동학습의 좋은 점에 대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 ㄱ. 저는 팀으로 함께 진행한다는 게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게 그냥 개인이 혼자서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가 결승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그냥 기권할까 막 저희끼리 그냥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같이 팀으로 하니 까 서로가 서로 거를 봐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걸 피드백을 해 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뭔가 잘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약간 이게 좋은 팀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참가자2)
- ㄴ. 토론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 팀원들이 너 그거 얘기 안 했어 너 이 부분 빠뜨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가자1)
- ㄷ. <중략> 아무래도 토론대회 과정에서 말이라는 게 중심이 되니까 피드백이 오면서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돌려봐야겠다 해서 팀원들과 함께 이것을 서로가 서로를 피드백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약간 뭔가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그렇고 말하기 영역에서 특히 조금 약간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가자2)
- ㄹ. <중략> 되게 특이했던 게 뭔가 그냥 계속 서로가 서로를 뭔가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말 하면 뭐라고 할 거야, 심지어는 자기가 본인이 반론을 써놓고도 근데 내 이 반론에서 이렇게 또 반론이 들어오면 어떡해. 약간 그렇게 하니까 꼭 저희 안에서 성벽 쌓듯이 근데 이거 이렇게 막으면 돼. 이 근거로 막으면 돼. (참가자3)

14ㄱ~ㄷ)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토론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14ㄷ)에서는 토론 과정에서 팀원들의 생각이 모여 상대팀을 방어하는 경험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경험이었으며 팀원들 간에 서로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논증을 강화하는 데 팀원들 간의 협력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팀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팀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동기부여로 작용하는 경험도 나타났다.

15) ㄱ. 이번 토론대회 나가면 심지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거고 심사위원분들도 앉아 계신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 떨리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걱정을 사실 하기 직전까지도 계속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예선 딱 하는데 생각보다 그냥 떨리는 느낌보다도 지금 내가 이거를 준비한 거를 말을 하고 가야 겠다라는 생각이 떨림보다 이렇게 앞서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팀원들이 같이 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참가자3)

ㄴ. <중략> 3명이 한 팀으로 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못해도 다른 팀원들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제 몫을 좀 더 할 수 있는 만 최대한 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하면 할수록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토론 때마다 했던 말이 우리가 준비했던 건 다 하고 가자 우리가 준비했던 만큼만 진짜 최대한 하고 가자 이렇게들 얘기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덜 긴장되고 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5)

ㄷ. 저희 약간 성공한 팀플의 예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솔직히 저는 약간 진짜 이렇게만 매번 팀을 만나면 팀플 있는 수업 다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략> 맨날 저희가 아침 8시에 딱 학교 앞 스타벅스에서 매일 2시간씩 만나서 일단 하고 그리고 6시 이후에 이제 수업 끝나면 또 맨날 가는 카페에서 한 3~4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맨날 힘들다 너무 피곤해 하면서도 막 시작하면 진짜 다들 막 근데 이거는 이 자료도 있던데 막 볼 타서 의견도 내고 그러면 사실 각자가 과

제나 이런 거는 좀 알아서 약간 좀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일이 많아도 그냥 정해진 시간에 다 나오고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준비하고 또 주말 동안이나 아니면 안 만날 때 급하게 다들 과제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했어요. (참가자1)

15ㄱ)에서는 토론 과정에서 떨림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같이 있다는 생각이 큰 힘이 되었으며, 15ㄴ)에서는 조금 못해도 다른 팀원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내 몫을 최대한 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15ㄷ)에서는 팀원들의 희생과 양보, 이해에 기반한 팀 활동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준비하는 원동력이었으며 성공한 팀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나아가 이런 팀이라면 앞으로도 팀활동 수업을 더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팀으로 하는 협력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서로 간의 희생과 양보,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팀원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감이 상승하고 자기 몫을 하겠다는 동기부여로도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팀활동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들에게서는 팀 활동 과정에서 특별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팀원에 대해 다소 미안함을 표하거나 다른 과거의 경험을 통해 팀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다.

- 16) ㄱ. 저희는 그런 쪽에서는 그게 없었고 사실 그러니까 00 언니가 아무래도 입론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을 솔직히 많이 이게 가장 준비하는 시간이 길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도 막 언니 너무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 맞춰가면서 괜찮게 갔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는 다 너무 괜찮았고 (참가자2)
- ㄴ. 고등학교 때 약간 조별 과제를 하면서 느낀 거는 좀 이제 그 어떤 과제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갖춰져 있는 조원을 만나면 과제를 하는 데서 딱히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그렇게 그렇게 크게 성실성이나 그런 의욕이나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이 이제 같은 조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참가자7)

토론 활동은 상대팀과 직접 토론하는 활동만이 아니라,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활동도 함께 포함된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경험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이 모두 균등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누군가는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은 팀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연구 대상자들에게서는 특별히 이러한 갈등의 경험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이 토론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서로 간의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토론대회 과정에서의 팀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협동학습의 장점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양보 등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잘된 협동학습은 개인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나 자신감 등을 팀이 함께한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토론대회 준비 과정에서 팀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협동 능력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

5) 학문적 역량

학생들이 토론대회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학습 방법 등은 다른 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 ㄱ. 토론대회 때 한창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었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시험공부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그전에는 글을 읽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공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게 핵심이고 저게 핵심이고 이렇게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약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할 때도 원래는 제가 경중을 다루는 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진 중요한 거고 이진 중요하지 않은 거다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만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러 갔었어요. 근데 그게 어찌면 토론대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2)

- ㄴ. 중간고사 때는 토론대회 전이었으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쪽지로 길게 피드백을 주셨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학생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제가 전혀 생판 다른 답을 적어서 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 대답이 틀렸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기말고사 때는 이제 당연히 토론대회가 끝난 당일이고 그래서 이제 길게 또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많이 고쳐줬습니다 라는 문장을 딱 받고 나니까 토론대회 영향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1)
- ㄷ. 토론대회 끝나고 보니까 A4지 한 10장 정도, 이제 찬반에 한 페이지 반 정도 쓰는 연습을 일주일마다 글 2개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 읽기와 토론에서 글을 써냈는데 <중략> 피드백을 작게 써야지 좋은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수님이 진짜 얼마 안 적어주셔서 내가 이 쓰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이 공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게 또 수업에도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참가자3)
- ㄹ. 제가 아무래도 경영학과다 보니까 문과이긴 한데 수학이 아무래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수학은 진짜 철저한 논리, 비논리가 용납이 안 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토론도 계속해서 논리성을 검증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토론을 준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약간 합리성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경영학과 학과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참가자6)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문을 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들을 토론을 통해서 신장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7ㄱ)에서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17ㄴ)에서는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 17ㄷ)에서는 글을 쓰는 능력,

17ㄷ)에서는 논리성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에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과 질문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생각한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논리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이러한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경험하는 한편, 이것이 토론대회를 넘어 다른 과목의 학습 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와 같은 학습 방법의 습득은 토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혹은 팀원들 간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주도학습 역량의 신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 역량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주도하고, 적극적·도전적으로 학습내용 및 학습방법을 선택 및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⁸⁾ 학생들은 토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이 스스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논제를 해석하고 자료를 찾아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실제 토론에서 이를 수행한다. 이 과정은 교수자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반복되는 토론 준비 과정과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학습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기주도적학습 역량 가운데 학생들이 경험한 대표적인 것이 17)에서 언급한 학습 방식들이다. 토론 교육은 단순히 토론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 즉 ‘학습 방법’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는 앞으로 평생학습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토론대회에서 많은 자료를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내용지식이 다른 교과목의 내용과 연계될 때도 교육적 효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토론을 준비하면서 챗GPT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제가 1학기 때 들었던 교양 강의가 <인간과 언어 본능>이었어요. 근데 이

8) 이정미, 이길재,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9권 3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136쪽.

강의에서 자연어, AI와 관련해서 인간의 언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교수님께서 요즘 챗GPT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무슨 얘가지? 이러면서 바로 듣고 촘스키가 어땠다 이러면 그럼 애들한테 와서 야 오늘 교수님이 촘스키를 얘기하셨는데 이러면서 찾아보면 촘스키가 챗GPT에 대해서 뭐라 뭐라고 했대. 그랬어요. <중략>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전공에서 또 교수님이 언어학을 배웠으면 촘스키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길래 근데 아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게 생각보다 저 스스로에게 약간 성취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 저 사람 아는데, 나 저 기술에 대해서도 내가 찾아보고 읽어본 건데, 이런 게 저 스스로에게 조금 그 공부를 하는 데 재미라든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 같고, 또 이유 없는 자신감과 친근감이라고 해야 되나, 교수님의 지식을 따라가기는 한참 멀어도 그 순간만큼은 교수님이랑 나랑 뭔가 나도 저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나 좀 아는데, 약간 뭔가 좀 아는 척하고 싶고 뭔가 거기서 조금 더 크게 꼬덕 그러면서 호응하고 대개 뿌듯하고 그랬어요. (참가자2)

18)은 토론대회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 다른 수업과 연계될 때, 학생은 교수자와 교감을 느끼기도 하고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기도 하며,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토론대회 기간에 학생들은 많은 종류의 자료를 읽고 분석함으로써 수강한 과목의 수업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었던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을 폭넓게 습득하게 된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습득한 지식이 다른 교과목 내용과 연계될 때, 학생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며 수업에 대한 흥미도도 상승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주도적 선행 학습이 주는 교육적 효과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과 그에 따른 내적 동기유발 등의 효과⁹⁾와 유사한 교육적 효과가 토론 교육을 통해서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동안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논의에서는 토론이 다른 학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간과되어왔다. 선행연구에서

9) 최정선·박종근·구인선, 「자기 및 타의주도적 선행학습이 과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7권 9호, 한국과학교육학회, 2007, 765~777쪽.

살펴보았듯이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도 적지만, 그러한 연구들 대부분이 교수자가 예측한 교육적 효과를 설문문항으로 제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토론의 효과로 예측되는 토론 능력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주로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하면 토론이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을 위한 방법론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대학 토론 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며, 대학에서 토론 교육이 더 널리 행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결론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독서토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경험을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토론 능력, 독서 능력, 사고력, 협동학습, 학문적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론 능력에서는 논리성에 기반한 논증 능력의 향상이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주로 말하기, 듣기의 문제점 개선이 나타났다. 독서 능력에서는 장르 편향적인 독서 태도의 변화와 비판적 독서 체험이 나타났으며, 토론대회를 통해 관점의 다양화와 사고력의 확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대회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팀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거나, 팀원 간의 신뢰가 토론 능력의 향상과 동기를 부여하는 경험을 하는 등 협동학습의 장점도 경험했다. 또한 토론대회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학습 방법 등은 다른 교과목 수강에 전이되어 학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학문적 역량강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 학생들이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능

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그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는 토론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활동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경험을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교육적 효과로서의 자기주도적학습 역량 등, 학문적 역량 강화 부분이다. 그동안 토론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현재 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교육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는, 지식의 생성에도 변화를 가져와 앞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로의 변화가 예측된다. 이런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학습 역량 같은 학문적 역량이 중요해진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기주도적학습을 경험하고 이를 다른 과목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토론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토론 교육에서도 이를 위한 교육 방안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적 효과들을 찾을 수 있었으나 지면의 한계상 다음 논의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논저

- 강수진, 「논증적 글쓰기와 교육 토론의 통합 수업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7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 고혜원, 「교양교육으로서 독서 및 토론 수업 방안-중앙대학교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28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6.
- 이미정, 「의사소통 심화 과정으로서의 토론 수업 방안 연구-전문대학 교양국어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이선영, 「토론대회 경험과 토론 효능감에 대한 연구-고등학교 토론대회 소감문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9권, 국어교육학회, 2010.
- 이정미, 이길재,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9권 3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 장영희, 「대학생 토론 교육의 실제와 개선 방안 연구-남서울대 토론 지도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18집, 화법연구회, 2011.
- 정현숙, 「교양기초교육으로서의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제언 : 성균관대학교의 스피치와 토론 과목 사례」, 『교양교육연구』 6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 정현숙, 정순현, 「아카데미식 토론수업의 교육적 효과—성균관대학교 토론수업사례」, 『철학·윤리 교육 연구』 21권 35호, 한국철학교육학회, 2005.
- 조민하, 「대학생 토론의 청중 평가 분석을 통한 교육 내용 모색에 대한 연구」, 『화법 연구』 22권, 한국화법학회, 2013.
- 최정선·박종근·구인선, 「자기 및 타의주도적 선행학습이 과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7권 9호, 한국과학교육학회, 2007.
- 황순희, 「공학인 대상 <아카데미 토론> 강의내용 개발과 교육적 효과 분석」, 『수사학』 16집, 한국수사학회, 2012.

〈Abstract〉

**The Educational Effects of Debate as Seen through
the Experiences of Debate Contest Participants**
- Focusing on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Reading Debate Competition -

Cha, Yun-Jung

This study analyzed the experiences of participants in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Reading Debate Contest to determine the educational effects of debate. If students' experienc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educational effectiveness, they can be divided into debate ability, reading ability, thinking ability, cooperative learning, and academic competency. In terms of debate ability, there was an improvement in argumentation skills based on logic and an improvement in communication skills that improved speaking and listening problems. In terms of reading ability, changes in genre-biased reading attitudes and critical reading experiences appeared, as well as diversification of perspectives and expansion of thinking ability. Advantages of cooperative learning were also revealed, such as improving problems through feedback between team members and trust between team members improving debate ability and motivating them. Academic competency was also shown to be strengthened, with knowledge and learning methods gained through debate competition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academic performance. What is noteworthy is that, first, students are specifically aware of the educational effects of debate. Students were analyzing the improvement of specific abilities through debate, the reasons for thinking so, and the process of improving those abilities. Second, the strengthening of academic capabilities, such as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which had not received attention as an educational effect of debate, appeared.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actively considered in future debate education.

* Key Words: Debate, Educational Effect, Debate Ability, Cooperative Learning,
Academic Competency

·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20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0일 · 게재결정일: 2023년 11월 23일
--